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문학에 나타난 죽음의 표상*

아야세 마루 『이윽고 바다에 닿다』와 이시자와 마이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를 중심으로

심정명(조선대학교, HK교수)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이윽고 바다에 닿다』: 죽음의 궁극적인 타자성
- III.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 공통의 경험으로서의 죽음
- IV.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해 누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로 인한 죽음을 애도하는 당사자일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쓰나미로 인해 행방불명된 인물을 유령으로 작중에 직접 호출하는 아야세 마루의 『이윽고 바다에 닿다』와 이시자와 마이의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를 다룬다. 두 작품은 주인공이 쓰나미로 인해 죽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천착하는 과정에서 독자들도 또한 쓰나미로 인한 상실과 아픔을 추체험하고 애도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쓰나미가 아닌 다른 죽음들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 같은 작품들은 보편적이고도 개별적인 죽음의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다른 재난과 관련된 아픔도 상기하고 슬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주제어: 동일본대지진, 재난문학, 기억, 애도, 아야세 마루, 이시자와 마이, 3,11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1059888)

I. 들어가며

2021년 3월 5일에 발매된 문예지 『군조(群像)』 4월호에 실린 뒤 제165회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 구도 레인(くどうれいん)의 『고드름의 목소리(氷柱の声)』가 다루는 것은 동일본대지진¹⁾이라고 보통 지칭되는 복합재난과 관계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들이다. 아니, 애초에 등장인물들과 동일본대지진의 관계 자체가 다양하다. 예컨대 주인공인 이치카(伊智花)는 지진이 일어나던 당시 이와테(岩手)현의 고등학생으로, 큰 지진을 겪기는 했지만 쓰나미의 피해는 입지 않았다. 이치카는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하여 뭔가를 상실한 당사자만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막막함을 느낀다. 그에게는 미야기(宮城)현에서 지진을 겪은 뒤 쓰나미의 영상이나 불타는 계센누마(気仙沼)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연인도 있으며, 동급생들 대부분은 가족 중 누군가를 잃었음에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지진이라는 커다란 이야기가 덮여 씌워진 것 같다고 느끼는 후쿠시마(福島)현 출신 친구도 있다. 후자의 인물이 소설 후반부에서 다소 직접적으로 토로하듯, 삶의 풍경에 ‘2011년 3월 11일’이라는 캡션이 붙는 순간 부여되는 “특별한 의미”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인생이 있다는 것²⁾이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자는 이 소설의 후기에서 이른바 ‘진재물(震災もの)’이라는 것은 없으며, “2011년 3월 11일 이후 우리의 생활은 모두 ‘진재 후’의 것”으로서, 어디에 살아도 또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해도 그 인생은 ‘진재물’이라고 결론 내린다.³⁾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리고 작자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실은 도호쿠(東北) 지방과 어떻게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다. ‘2011년 3월 11일 이후’라는 시점, 그리고 ‘우리’라는 호명이 어떠한

1)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대지진·쓰나미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문학이라는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일련의 복합재난을 대지진 혹은 동일본대지진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2) くどうれいん, 『氷柱の声』, 講談社, 2021, 107쪽.

3) 위의 책, 119쪽.

범위까지를 포함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가령 도쿄에 있으면서 쓰나미의 영상을 바라본 사람들, 심한 흔들림도 겪지 않았고 계획 정전으로 인한 거리의 어두움이나 대지진 직후의 일시적인 휴지나 생수의 품귀 현상도 경험하지 않은 일본의 다른 지역 사람들, 혹은 해외에 있으면서 뉴스를 통해 대지진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 이들도 모두 2011년 3월 11일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할 수 있는가? 또는 “힘내라 일본”이라는 구호의 대상인 일본인들은 모두 이 재난의 당사자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대지진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도호쿠 3현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이 재난을 ‘우리’라는 주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가?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많은 이들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 ‘그 일 이후로 세계가 바뀌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일본문학과 관련해서 보면,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문학이 새롭게 쓰이고 읽히는 방식으로서 ‘진재 후 문학’이라는 관점을 일찌감치 제시한 기무라 사에코(木村朗子)는 이 같은 감각을 ‘세계의 껍질이 벗겨졌다’고 비유하기도 하였다.⁴⁾ 바다에 가라앉은 ‘그날’의 유품을 건져 올리는 잠수사를 다룬 덴도 아라타(天童荒太)의 소설 『문 나이트 다이버(ムーンナイト・ダイバー)』에서 주인공이 “그 일이 일어났지. 뭔가가 변했어. 이제 달라져 버렸어. 달라지지 않은 척 하며 예전처럼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미 바뀌었어”⁵⁾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 같은 관점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 가령 이러한 대지진 이후의 문학을 세계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 심포지엄에서 누마노 미쓰요시(沼野充義)는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참사의 전례 없는 결합이라 할 수 있는 동일본대지진은 그 규모와 비극적인 의미 때문에 “홀로코스트, 9.11 동시다발테러, 아니 단적으로 전쟁”에 비견될 만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문학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3.11 이전의 세계에서 3.11 이후의 세계로의 월경자, 망명자”(강조는 인용자)라고 단언한다.⁶⁾

4) 木村朗子, 『震災後文学論あたらしい日本文学のために』, 青土社, 2013, 9쪽.

5) 天童荒太, 『ムーンナイト・ダイバー』, 文藝春秋, 2016, 166쪽.

여기서도 똑같이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후’와 ‘우리’ 내지 ‘세계’의 경계에 대한 물음이다. 한편으로는 동일본대지진이 ‘우리’ 모두에게 ‘재후(災後)’라는 이전과 구분되는 시간을 가져온 사건으로서 특권화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동시에, 거기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꺼이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는 데에 대한 거리낌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난의 죽음과 그것을 애도하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거리감에 대한 물음이 놓여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쓰인 여러 소설 가운데 쓰나미로 인한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으로서 아야세 마루(綾瀬まると)의 『이윽고 바다에 닿다(やがて海へと届く)』와 이시자와 마이(石沢麻依)의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貝に続く場所にて)』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이때의 ‘이후’란 동일본대지진 이전과 이후에 시간적 단절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사건의 커다란 축 중 하나인 쓰나미로 인한 죽음이 그 뒤에 쓰인 소설들에서 어떻게 언어화되었는지에 주목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즉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문학으로서의 ‘진재후’ 문학 혹은 ‘재후’ 문학이라는 관점을 취하지 않는 대신, 그 같은 죽음을 멀거나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았을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쓰나미로 인한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룬 문학작품들은 그 자체로 그러한 죽음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려는 작업이기도 한데, 이를 읽는다는 것은 그러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두 작품의 분석을 통해 명확해지는 것은, 이렇듯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쓰인 작품들이 일본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6) 沼野充義 「あの日」を越えて: 私たちはみな震災後の亡命者である」, 木村朗子・アヌヌ・バヤール=坂井編 『世界文学としての(震災後文学)』, 明石書店, 2021, 39-59쪽. 이렇게 동일본대지진을 전쟁이나 원폭 투하 나아가서는 홀로코스트에 빚대는 예는 드물지 않지만, 가령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를 연결시켜서 후쿠시마를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의 연장선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량사과 파괴의 규모를 이유로 쓰나미를 전쟁이나 대량학살과 나란히 놓는 것은 후자를 인간의 주체적 행위를 배제하고 자연 재해처럼 받아들이는 관점과도 겹쳐진다는 점에서 신중해야만 할 것이다.

닿아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후’의 문학이란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독자들이 다른 기억을 함께 상기하고 문학 밖의 재난들에 관여할 수 있게끔 촉발하는 계기들 중 하나여야 할 것이다.

쓰보이 히데토(坪井秀人)가 비판하듯, 동일본대지진 이후 죽은 이들이나 죽음과 마주하는 경험은 일본문학에 거의 국민적인 ‘사자론(死者論)’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죽음은 종종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공습이나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의 기억과 함께 묶임으로써 전후의 내셔널한 역사로 회수되는 것이었다.⁷⁾ 그럼에도 이 같은 문학작품들은 본래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일본대지진을 내셔널한 경계로 에워싸지 않고 죽음과 그것을 마주한 인간들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맥락 속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도 이 같은 읽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작품들에서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그려내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기억하는 이들로서의 ‘우리’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이윽고 바다에 닿다』와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는 쓰나미에 휩쓸려 죽었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어떠한 형태로 등장시키며, 살아있는 주인공을 통해 그들의 죽음이나 그것을 초래한 쓰나미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사고하고 기억할 수 있을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두 작품은 살아있는 사람의 죄책감을 이야기의 출발점에 두고, 쓰나미로 인해 죽은 자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를 의식적으로 탐구한다. 또한 이 작품들에서 쓰나미에 휩쓸린 인물들은 행방불명자라는, 즉 시신을 확인할 수 없어 죽음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남아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들은 유령이나,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살아있다고 표현되지 않는 상태로 소설에 직접 등장한다.

쓰나미 피해지역에서 목격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유령’ 현상과 관련해 가

7) 坪井秀人, 「生者と生きる: <ポスト3.11>の死者論言説」, 坪井秀人・シュテフィ・リヒター・マーティン・ロート編, 『世界のなかのポスト3.11:ヨーロッパと日本の対話』, 新曜社, 2019, 169-190쪽.

네비시 기요시(金菱清)는 재난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삶과 죽음은 분명히 나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중간에 있는 행방불명과 같은 '모호한 상실'에 대해서는 그 죽음을 실감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⁸⁾ 그에 따르면 유령을 본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위령과 관련된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살아남은 등장인물들이 다른 이들의 죽음과 자신의 살아있음이라는 간극을 어떻게든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이 같은 소설들의 시도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쓰나미로 인한 죽음을 생각할 때의 영위와도 이어진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쓰나미로 인한 죽음이라는 사건의 바깥에 있듯 만들어진 허구로서의 재난문학을 읽는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그리는 이야기의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히 읽음으로써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로 깊숙이 다가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작품이 보편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죽음의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다른 재난과 관련된 아픔도 상기하고 슬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문학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이윽고 바다에 달다』: 죽음의 궁극적인 타자성

주지하다시피,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쓰인 문학에서 주로 나타나는 주제 중 하나로 죽음이거나 그에 대한 애도를 들 수 있다.⁹⁾ 그중에서도 특히 죽은 자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는데, 대표적으로는 2013년에 발표된 이토 세이코(いとうせいこう)의 『상상 라디오(想像ラジオ)』가 쓰나미로 목숨을 잃은 주인공을 화자로 등장시켜서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상상 라디오』에서 죽은 자가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에 주목한 박유미는 이러한 문학을

8) 石戸諭, 『リスクと生きる, 死者と生きる』, 亜紀書房, 2017, 108쪽의 인터뷰에서 인용.

9) 藤田直哉, 『同時代としての震災後』, 限界研編, 『東日本大震災後文学論』, 南雲堂, 2017, Kindle Edition.

읽는 가운데 독자가 주인공을 자기 자신으로 느끼면서 개인의 죽음이 사회화된다고 평하기도 한다.¹⁰⁾ 기무라 사에코에 따르면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있는 인간의 현재에 현현하여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 라디오』뿐만 아니라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문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다.¹¹⁾ 이 같은 문학작품들은 쓰나미가 가져온 충격적인 죽음들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시마조노 스스무(島蘭進)가 지적하듯 그 자체로 종교나 전통의례처럼 비탄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¹²⁾ 아야세 마루의 『이윽고 바다에 닿다』 역시 쓰나미로 행방불명된, 즉 죽은 자를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으로 쓰고 있는 작품이다. 동시에 이 소설은 쓰나미로 친구를 잃고 그 상실에 괴로워하는 인물을 또 다른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경계 혹은 죽음과 그에 대한 기억이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하는 『이윽고 바다에 닿다』는 두 명의 화자가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일인칭시점의 두 가지 이야기로 전개된다. 첫 번째 화자인 고타니 마나(湖谷真奈)는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도호쿠에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행방불명된 친구 스미레(すみれ)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소설은 마나가 혈액검사를 위해 피를 뽑다 팔에 멍이 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소설에서 마나가 내내 의식하는 이 멍은 죽은 친구의 흔적이나 기억처럼 둔탁한 아픔을 주다가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인 동시에, 마나가 이렇듯 쉽게 상처 입는 유한한 몸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임을 보여준다. 한편, 처음에는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는 다른 화자는 바로 쓰나미에 휩쓸린 스미레 자신으로, 그가 문득 의식을 차리고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에 앉아있는 데서부터 그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는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알아들을 수 없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막연히 어딘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다.

10) 박유미, 「동일본대지진과 재해문학의 치유와 재생 담론」,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104호, 2016, 139쪽.

11) 木村朗子, 『『その後の震災後文学論』, 青土社, 2018, 165-166쪽.

12) 島蘭進 『ともに悲嘆を生きる: グリーフケアの歴史と文化』, 朝日新聞出版, 2019, 129쪽.

소설은 마나와 스미레의 관계를 통해 저 바깥의 재난, 영상으로 보았던 쓰나미로 인한 죽음들을 ‘나’와 가까운 곳으로 끌어온다. 도쿄에서 생활하는 마나에게 동일본대지진은 직접적인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소설은 마나 자신이 이 지진을 어떤 방식으로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래서 마나는 동일본대지진을 “3년 전 큰 지진이 이 나라를 흔들고 연안 마을에 밀려온 쓰나미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¹³⁾라는 말로 담담히 정리할 수 있다. 대신 동일본대지진은 그에게 스미레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개인적인 사건으로서 존재한다. 즉 소설은 쓰나미로 죽은 사람을 화자인 ‘나’와 대단히 친밀한 사람으로 설정함으로써, 그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일에 계속해서 구애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참사를 넘어설 힘을 주세요. 부디, 부디, 그것만 있으면 사람의 영혼은 깨지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되풀이되는 검은 파도의 영상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바랐다. 저곳에, 저렇게 무시무시한 장소에 스미레는 있었나?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나?(綾瀬, 100쪽)

쓰나미를 직접 겪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러했을 것처럼, 마나 역시 절박한 심정으로 “검은 파도의 영상”[강조는 인용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마음은 개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령 18,423명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보다는 ‘스미레’라는 특정한 인물에게 더 분명히 향하고 있다.¹⁴⁾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Vladimir Jankélévitch)는 범상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비개인적이고 익명적인 죽음인 3인칭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아니면서도 나의 죽음과 가장 유사한 죽음인 2인칭의 죽음을 구분하였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나가 경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과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2인칭의 죽음이다. 하지만 아마도 쓰나미의

13) 綾瀬まる, 『やがて海へと届く』, 講談社, 2019. 본 논문에서는 2016년에 간행된 단행본에 가필·수정을 한 문고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하, 본문에서의 인용은 말미에 (綾瀬, 쪽수)로 표기함.

14) 2022년 3월 9일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5900명, 행방불명자는 2523명이 되었다. 「死者数1万5900人 東日本大震災11年、警察庁まとめ」(<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E099ZW0Z00C22A3000000/>, 2022년 9월 25일 접속)

영상을 바라보았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한 죽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죽음들처럼 단지 스쳐지나갈 수만은 없는 것으로서 경험되지 않았던가? 그렇게 볼 때, 이처럼 안타까움 속에서 반복적으로 바라본 죽음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범상한 죽음과는 또 다르다. 그리고 2인칭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의 죽음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그 같은 죽음을 단지 3인칭의 것으로만 여기기는 어렵게 만든다.

종교학자인 호리에 노리치카(堀江宗正)는 3인칭의 죽음이란 죽은 이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나 무관할 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늘 2인칭의 죽음일 것이라는 상식과는 달리, 오늘날의 사회에는 고독사 등 3인칭의 죽음일 수 밖에 없는 죽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¹⁶⁾ 이와는 반대로, 나와 관계 맺고 있지 않은 타인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연유로 그것이 2인칭의 죽음처럼 가깝게 여겨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스즈키 이와유미(鈴木岩弓)는 2인칭의 죽은 자와 3인칭의 죽은 자 사이에, 대면 경험의 없음에도 희미한 감정의 대상이 되는 2.5인칭의 죽은 자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스즈키가 말하는 2.5인칭의 죽은 자란 상이 끝난(弔い上げ) 조상으로서, 이들은 고유명사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가까스로 유지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만난 적이 없으므로 2인칭은 아니지만, “우리 집과 관계있는 사람”이기에 3인칭의 죽은 자와도 동일시될 수 없다.¹⁷⁾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죽음에 대한 기억은 중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것을 공유하는 이들을 묶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죽음은 3인칭임에도 불구하고 2인칭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2.5인칭과 같은

15)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 변진경 옮김, 『죽음에 대하여: 철학자 장켈레비치와의 대화』, 돌베개, 2021, 17쪽.

16) 堀江宗正「共同体の力: 霊的体験の地域差はなぜ生じたのか」, 高橋原・堀江宗正『死者の力: 津波被災地「霊的体験」の死生学』, 岩波書店, 2022, 107-108쪽.

17) 鈴木岩弓, 「二・五人称の死者: 死者の記憶のメカニズム」, 鈴木岩弓他編, 『<死者/生者>論: 傾聴・鎮魂』, ぺりかん社, 2018, 174-175쪽.

위치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스키와는 달리 가문(イエ) 혹은 네이션의 종적인 연결보다는 이 같은 죽음에 대한 감정이나 기억이 동시대에 횡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전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동일본대지진이 호리에의 표현처럼 “집합적 비탄”¹⁸⁾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이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자신과 종적인 연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3인칭의 경험으로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명확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까운 것으로 경험되는 이 같은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소설은 쓰나미로 인한 죽음을 주인공과 실제로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즉 2인칭의 죽음 쪽으로 완전히 끌어당기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운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거꾸로 던지고 있다. 동일본대지진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갖가지 고통과 관련해서는 누가 그것의 당사자인가라는 물음이 종종 제기되곤 하는데, 소설은 쓰나미로 인한 죽음이 남의 일일 수 없는 등장인물을 통해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2인칭의 죽음 역시 관계 맺기가 어렵고, 그 똑같은 어려움을 통과하여 3인칭의 죽음과도 관계 맺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읽기를 이 소설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마나는 스미레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의 행방불명을 죽음으로서 완결시키고 잊어버리며 혼자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에 저항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스미레의 연인이었던 도노(遠野)가 스미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집에 있던 스미레의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데에도 반발심을 느낀다. 마나에게 스미레의 물건은 그가 살아있었다는 흔적이자 존재의 증거로서, 그러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스미레의 조각”(綾瀬, 92쪽)을 이 세상에서 없

18) 堀江宗正, 「絆の力: 被災者たちは亡き人との絆にどう支えられているのか」, 高橋原・堀江宗正, 앞의 책, 75~76쪽. 이 같은 맥락에서 말하면, 본 논문은 바로 3인칭의 죽음과 2인칭의 죽음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스미레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된다. 목숨과 몸을 빼앗기고, 거기다 그녀가 있었다는 존재의 의자까지 빼앗긴다”(綾瀨, 92쪽)는 생각은 줄곧 마나를 괴롭힌다. 스미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도노와는 달리, 마나는 스미레를 잃은 아픔과 괴로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 스미레를 조금씩 잊어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이는 앞에 언급했듯 마나가 집착하는 팔의 멍이 조금씩 벌어지다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과도 겹쳐진다.

그 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계속 손을 잡고 있을 걸 그랬다. 여름 산에서 잡았던 그날부터, 그 매끈매끈하고 차가운 손을 줄곧, 줄곧 놓지 않을 걸 그랬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제 어디에도 없다.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손바닥이나 귀나 손끝이 모르겠다고 계속 떼를 쓴다.(綾瀨, 54-55쪽)

“뭔가……, 뭐라고 해야 하지? 왜……, 왜 내가 아니라 스미레였을까 같은 생각을 하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그거랑 이진 다르잖아.”

“옆에 나란히 누워서 잤던 적도 있어. 번개가 치는 밤에는 손도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마찬가지로야.”(綾瀨, 58)

마나는 자신이 스미레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뿐 아니라 그가 죽었음에도 자신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물론 화면 너머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여기’의 나는 살아있는데 ‘저기’에서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삶과 죽음의 우연성에 대한 인식은 쓰나미로 인한 죽음들을, 그리고 다른 많은 재난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기도 하다.¹⁹⁾ 그것이 응축된 물음이 바로 “왜 내가 아니라 스미레였을까”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 다른 아닌 마나 자신과 “나란히 누워서 잤던” “손도 잡”았던 존재로서의 스미레가 죽었다는 사실 또한 겹쳐진다. 소설에서 마나는 “광대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살아있는 시간, 나아가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후(死後)의 어둠”(綾瀨, 21쪽) 속에 있는 자기 존재의 근거를 그를 깊이깊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으로

그려진다. 자신의 삶과 스미레의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이해할 수 없는 마나는 적어도 스미레의 연인이었던 도노는 스미레의 죽음과 좀 더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마나가 마음속으로 도노에게 스미레를 “깊이깊이 사랑했어? 아직 전부 기억해?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 꿈에는 나왔어? 뭔가 마음 같은 것이 이어져 있어? 아니면 이미 끊어진 느낌?”(綾瀨, 59쪽)이라고 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마나는 도노가 스미레를 잇는다면 자신이 “마음을 보내고 관계를 지켜서” 스미레를 이쪽 세계로 이어주는 “살로 된 끈(肉の緒)”(綾瀨, 100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나 혹은 도노와 스미레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 사실상 아무리 가깝게 연결돼 있어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그 죽음이 아무리 나와 지근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결코 나의 죽음이 아니다. 소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그것이 2인칭이라 할 만큼 가깝든 3인칭이라 할 만큼 멀든, 결코 1인칭으로는 경험될 수는 없는 죽음의 궁극적인 타자성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설은 쓰나미로 인한 죽음을 생각하는 문제를 타인의 죽음 일반에 대한 것으로 확장시킨다. 쓰나미로 인한 죽음뿐 아니라, 기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죽음의 바깥에 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경험에 관여할 수 없다. 소설은 마나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점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 것을 그리면서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마나는 그날 출근하지 않은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짝막하게 통화하지만, 그런 뒤에 그가 욕실로 가서 목숨을 끊으리라고는 당연히 짐

19) 아주 작은 우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절망적으로 나뉜다는 것은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문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 기령 시바사키 도모카(柴崎友香)의 『내가 없었던 거리에서(わたしかいなかった街で)』와 같은 작품은 전쟁 다큐멘터리를 반복해서 시청하는 주인공을 통해 재난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의 거리나 삶과 죽음의 우연성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또 앞서 언급한 『문나이트타이버』에서도 쓰나미로 형을 잃고 자신은 살아남은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왜 그 일이 일어났지? 어째서 내가 남았지? 왜 저쪽 마을이 없어지고 이쪽 마을은 아무렇지도 않지? 누가 고른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天童荒太, 앞의 책, p.166.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문학에서 나타난 이 같은 우연성에 대한 물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심정명, 『재난과의 거리: 『내가 없었던 거리에서』와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문학』,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27,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0, 119~123쪽 참조.

작조차 하지 못한다. 나중에 점장의 죽음을 전해들은 마나는 “이상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째서 내게는 조금의 아픔도 전해지지 않는 걸까? 스미레 때와 마찬가지로. 도노한테서 전화가 올 때까지 나에게는 그 애의 고통 같은 건 한 조각도 닿지 않았다”(綾瀬, 124쪽)라고 자문한다. 직장 동료인 구니키다(国木田)에게 실은 쓰나미로 친구를 잃었다는 것을 털어놓으면서, 마나가 마음속에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죽은 점장이다. 그는 스미레에게 그랬듯 그 뒤에 일어날 죽음에 자신이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과거를 향해, 이미 죽어버린 상대방에게 “수화기를 놓지 마세요” “욕실에 가지 마세요”(綾瀬, 131쪽)라고 호소한다. 소중한 친구가 도호쿠에서 쓰나미에 휩쓸린 것과 일하는 레스토랑의 점장이 자살한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마나에게 그것은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과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죽음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포개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나가 깨닫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목숨과 내 목숨은 전혀 이어져 있지 않”(綾瀬, 131쪽)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쓰나미뿐 아니라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사람은 진정한 당사자일 수 없다고 소설은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설이 이미 죽은 사람 즉 스미레를 화자로 하여 일종의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는 이유 또한 이와 관련된다. 앞에서 언급했듯 스미레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살아 있을 동안 맺었던 모든 관계들에서 분리된 고독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가 보는 세계는 마나를 둘러싼 현실과는 다르며, 시간의 흐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막연한 환상과 같이 그려진다. 그곳에서 스미레가 느끼는 것은 이처럼 “잊어버리는 것의 쓸쓸함”이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파도, 나인 채로 돌아가고 싶다”(綾瀬, 117쪽)는 간절한 바람이다. 하지만 이윽고 스미레를 덮쳐오는 것은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는 기억이다. 그 속에서 그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신속하게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자신을 따라오는 쓰나미를 피해 있는 힘껏 달리지만 따라잡히고 만다.

안 돼, 죽을 수 없어. 떠나기 싫어. 날 지켜주던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진다. 겨우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었어. 여기까지 오는 데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데,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왜냐면, 왜냐면—.

왜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나를 구해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신이 없다. 납득이 없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요새가 어디에도 없다. 여기서 죽으면 시커먼 원한 속에 남겨진다.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걸까? 산다는 것은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는 걸,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걸까?(綾瀬, 136쪽)

갑작스럽게 닥쳐온 죽음에 대한 이 같은 감정은 작자 자신이 스미레처럼 도호쿠를 여행하다 쓰나미에 거의 휩쓸릴 뻔한 경험을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쓰나미의 검은 물결에 쫓겨 언덕에 있는 중학교까지 죽을힘을 다해 뛰어간 작자 아야세 마루의 머릿속에서는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는 말이 되풀이되어 울린다. 원전사고를 피해 피난장소로 간 그는 어쩌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서의 첫 두 줄을 쓰고 나서 곧장 휴대폰 화면을 덮어버린다. “쓸 수 없었다. 싫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²⁰⁾ 하지만 재난으로부터 무사히 달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의 우연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²¹⁾ 스미레처럼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스미레의 독백을 통해 소설이 그려내는 것은 살아있는 독자들이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바로 이처럼 부조리하고 갑작스러우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다. 베벌리 라파엘(Beverly Raphael)은 재난의 충격을 한번 경험한 인간은 원래와 똑같은 인간일 수 없다면서, 재난으로 인해 겪는 여러 상실 가운데 하나로 “죽음에 대한 천진난만한 마음의 상실, 그리고 자기만의 괜찮다는 마음과 자신을 지켜주는 힘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²²⁾을 든다. 소설에서 스미레는 결국 온전히 죽음을 맞이하지만, 쓰나미에 휩쓸리면서 그가 느끼는 것 또한 저주와도 비슷한 “이런 건 용서할 수 없어. 이래서 될 리가 없어. 절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綾瀬, 169쪽)라는 감정이다. 거기서 스미레는 라파엘이 말하듯

20) 綾瀬まる, 『暗い夜、星を数えて、3・11被災鉄道からの脱出』, 新潮社, 2012, 44쪽.

21) 같은 책, 65쪽.

세상이 자신을 조금은 소중히 여길 거라는 믿음과는 달리 아무것도 그를 지켜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는 너무나도 간단히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이미 죽은 ‘나’=스미레를 온전한 등장인물로서 그림으로써 소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이 어떠한 경험인지를 독자가 추체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여기서 쓰나미로 죽은 인물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하거나 잊는 혹은 애도하는 대상만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살아있지 않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주어이고, 그들이 죽는다. 그 순간의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갔을 생각들이나 그들이 했을 싸움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결코 완전히 알 수가 없다. 마나가 깨닫듯, “몇 천 명, 몇 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죽든, 우리는 단지 혼자서 자신의 세계의 끝과 마주한다.”(綾瀨, 150쪽) 『이윽고 바다에 닿다』에서 드러나는 것은 쓰나미로 인한 죽음이 바로 이렇듯 수많은 고독하고 고유한 세계들의 상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은, 흔히 숫자나 한 줄의 뉴스로 정리되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죽음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보는 것이다. 또 죽음이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함께 겪을 수는 없는 경험이라면, 그리하여 그것이 과연 어떤 경험일지 있는 힘껏 상상해보는 것만이 가능하다면, 반대로 언뜻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죽음들 역시 최대한 자기 곁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소설은 이 같은 죽음에 대한 상상을 쓰나미로 인한 것뿐 아니라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죽음들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동일본대지진을 타인의 죽음을 상기하고 슬퍼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다시금 자리매김한다.

III.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 공통의 경험으로서의 죽음

그런데 이 같은 고독한 죽음들이란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미 보편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동일본대지진

22) 디ヴァリー·라파엘, 石丸正訳 『災害の襲うとき:カタストロフィの精神医学』, みすず書房, 2016, 160쪽.

이 일본 사회에서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놓지 않는 동시에, 그렇다면 그 재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나아가 내셔널한 재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같은 기억이나 감정조차 애초에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본대지진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작품이 이 장에서 살펴볼 이시자와 마이의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다. 앞에서 살펴봤듯 『이윽고 바다에 닿다』가 쓰나미로 인한 죽음을 매우 친밀한 타자의 죽음이라는 한 점으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결국 모든 죽음을 타자의 경험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설정하며 그 무게를 독자가 추체험하게 한다면,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난 도호쿠, 일본이라는 경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험이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재난들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즉 두 작품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반대되는 방향에서 출발하는 셈이지만, 쓰나미로 인해 행방불명된 자와 살아있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그것을 가깝거나 친밀한 경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죽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는 제64회 군조(群像)신인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데뷔작인 동시에 2021년에 제165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9년이 지난 뒤의 독일 괴팅겐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는, 유학 중인 주인공인 ‘나’ 고미네 사토미(小峰里美)가 있는 곳으로 일본에서 같은 대학 연구실에 있었던 노미야(野宮)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9년 전의 도호쿠와 2020년의 괴팅겐이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연결된다. 단, 노미야는 “3월의 그날”²³⁾ 이시노마키(石巻)의 본가에 있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실종된 인물이고, 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즉 노미야는 “한 사람의 사망자로서 대면할 장소나 여유”가 없었던 쓰나미의 희생자들 중에서도 특히 “죽은자의 신체조차 없는 가운데 죽음이 현실화”(石沢, 27쪽)되어 간 행방불명자다. 이렇듯 완료되지 않고 공중에 붕 떠버린 그의 죽음은 그가 괴팅겐이라는 특정

23) 石沢麻依, 『具に続く場所にて』, 講談社, 2021, 19쪽. [이하, 본문에서의 인용은 말미에 (石沢, 쪽수)로 표기.]

한 장소에 마치 살아있는 인물처럼 나타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동일본대지진이 이미 종결된 과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²⁴⁾

이러한 관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 “그 3월의 날 이래 많은 적든 누구나가”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보고 있는 얼굴”(石沢, 24쪽)을 하고 있다는 화자 ‘나’ 즉 사토미의 서술이다. 소설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3월 11일이 거듭 ‘그날’, ‘3월의 그날’과 같은 말로 지칭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시간의 지층이 쌓여 있다고 서술되는 피팅겐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토미에게 그 특정한 시간이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됨을 보여준다.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토미는 원근법이 기억 속에서도 작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르면 무엇이 그 초점에 놓이느냐에 따라 기억의 배치는 바뀐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소설점은 어디까지나 그날에 놓여 버리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石沢, 52쪽: 강조는 인용자) 즉 소설의 시간은 명백히 ‘그날’=동일본대지진 이후로 설정되어 있는 셈이고, 이 같은 인식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문학적 인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때의 ‘우리’ 안에는 이 재난에 대한 다양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뒤섞여 있다. 소설은 주인공인 사토미를 센다이(仙台)시의 내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벽에 금이 가거나 가구 등이 쓰러지는 등의 지진 피해만 겪었을 뿐인 인물로 설정한다. 또 사토미는 노미야와도 대단히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이를 통해 소설은 쓰나미를 직접 경험하거나 쓰나미로 인해 가까운 사람을 잃

24) 다카하시 하라(高橋原)는 쓰나미 피해지역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유령 목격담에 대해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대신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심적 현실’, ‘이야기적 현실’에서는 죽은 이의 영혼이 유의미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高橋原, 「初めに」, 高橋原・堀江宗正, 앞의 책, x쪽. 이 같은 ‘이야기적 현실’은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에서도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 유령인 노미야는 해외체재와 관련된 행정수속을 밟거나 거주할 방안을 구하는 일을 비롯해 등장인물들과 실제로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존재하고, 사토미나 그 주변 인물 역시 쓰나미에 휩쓸린 노미야가 피팅겐에 와서 생활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노미야가 아직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고 어딘가에 존재하는 행방불명 상태인 것과도 관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구도 유카(工藤優香)가 조사하여 회제를 부른, 쓰나미 지역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자신이 경험한 ‘유령현상’을 리얼리티를 가진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경험을 연상하게 하기도 한다. 工藤優香, 「第1章 死者たちが通う街: タクシードライバーの幽霊現象」, 金菱清(ゼミナール)編, 『呼び覚まされる霊性の震災学: 3. 1 生と死のはざまで』, 新曜社, 1-23쪽 참조.

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이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는 소설에서는 사토미의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는 “말과 감각의 거리감”(石沢, 41쪽)으로 표현된다. 사토미는 ‘쓰나미’라는 말과 자신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자신도 그것을 “실제로는 화면 너머로 밖에 보지 않았”(石沢, 41쪽)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미야지 나오키(宮地尚子)가 지적하듯,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재난을 접한 사람들은 재난이 일어난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오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²⁵⁾

이미 신문의 사진이 전하는 연안부의 상황을 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과 우리의 혼란 사이에는 아직 투명하고 두꺼운 거리감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 비현실성은 실제로 바다 쪽을 보지 않은, 먼 거리로 인한 불안한 감각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면체의 결정(結晶)을 손 안에서 굴리듯이 타인의 증언적인 말을 모아서 들여다보며 이 사건을 소화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石沢, 48쪽: 강조는 인용자)

그리하여 사토미는 자신이 쓰나미라는 말에 어떠한 감정을 곁들이게 되면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잘못 재는 것”(石沢, 41쪽)처럼 비치지 않을지 우려한다.²⁶⁾ 삶과 죽음 또 독일과 일본 사이의 거리를 뛰어넘어 모처럼 대면한 노미야에게조차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은 사토미가 이렇듯 자신의 시점이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며 사건의 바깥에 놓여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토미가 느끼는 쓰나미와의 결정적인 거리감에는 9년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풍화 또한 겹쳐진다. 소설의 첫 장면에서 사토미는 노미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그는 “반쯤 얼굴이 사라진 내방

25) 宮地尚子, 『震災トラウマと復興ストレス』, 岩波書店, 2011, 40쪽.

26) 올바른 거리에 대해 주인공이 갖는 이러한 의문은 작자인 이시자와가 의식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일단 피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소설의 화자와 마찬가지로 쓰나미나 원전으로 터를 빼앗긴 사람은 아니기에 거리가 “먼 언어”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가장 피해가 컸던 연안부나 원전 피난구역 사람들을 향해 ‘잘못된 거리를 내보이는 데 대한 위화감이나 혐오감’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芥川賞受賞石沢麻依著『貝に続く場所にて』行方不明——帰れずにいる友との再会』(https://www.nhk.or.jp/radio/magazine/article/my-asa/hMPH5m411a.html, 2022년 9월 25일 접속)

자”(石沢, 3쪽)라고 표현된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쓰나미의 시각적인 이미지의 강렬함 역시 서서히 잊혀가고 있는 현실과도 겹쳐진다. 또 그에게는 지진과 그 이후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이 있지만 그것은 쓰나미나 원전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포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부분적일 뿐이다.

피부는 주기마다 세포가 새것이 되지만, 지진 뒤의 시간이나 감각은 조용히 투명한 피부 층으로 남아있는 채였다. 그래도 내 기억이 당도하는 곳은 깊이가 없이 하얗다. 이 모든 신체 기억을 연결해도 그것은 단편의 농후한 집합체에 지나지 않고, 그날의 전체상을 부조할 수는 없다. 신체 부위가 끌어안은 기억의 어트리뷰트(持物). 그것은 내 일부지만, 성인(聖人)과 같은 자기증명의 상징으로 쓸 수는 없다. 바다와도 원전과도 관계없던 장소에 있었던 것. 그것이 그날의 기억과 내 연결을 어딘가에서 놓치게 한다.(石沢, 60쪽)

그런데 한편으로 소설에서 이 같은 ‘거리’에 대한 감각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이 ‘3월 11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 즉 한쪽에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 재난의 ‘이후’를 살아가는 ‘누구나’ 혹은 ‘우리’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동일본대지진은커녕 애초에 지진이라는 경험 자체와도 거의 무관한 외부 즉 여기서는 독일인들이 있다. 지진을 거의 경험한 적이 없어 “지면이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안정성”(石沢, 36쪽)이나 “지면에 대한 선명하기까지 한 신뢰감”(石沢, 37쪽)을 가지고 있는 독일 사람들에게는 “신체에 새겨진 지진의 흔들림의 감각”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사토미는 “확신”할 수 있다.(石沢, 38쪽) 그리하여 독일어 지진(Erdbeben)과 딸기(Erdbeeren)를 착각해서 ‘지진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말해버린 일본인 여성의 일화는 사토미가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에서 왔다는 것과 관계없이 백퍼센트의 확률로 독일인들의 웃음을 야기한다. 사토미가 괴팅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사건은 도호쿠에서 일어난 지진이나 쓰나미보다는 ‘후쿠시마’로 상징되는 원전사고를 가리키는 것에 가깝다. 물론 사토미 역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그 말이 가진 두께를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자각한다. 하지만 그가 “액자 바깥”(石沢, 88쪽)에서 경험하면서도 줄곧 구애되지 않을 수밖에 없

는 동일본대지진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일단은 ‘우리’로 묶일 수 없는 외부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소설은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재난에 대한 세 가지 층위의 거리에 대한 감각을 그려낸다. 먼저 흔히 당사자성이라는 말로 제기되는 재난의 피해와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거리, 둘째로 “현재와 기억의 시간 차”(石沢, 36쪽)라는 말로 표현되는 시간적인 거리, 마지막으로 독일 혹은 유럽과 일본 또 도호쿠와 그 밖의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인 거리가 그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거리는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현재 괴팅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토미에게는 중첩되어 나타난다. 소설에서 이 같은 거리를 뛰어넘어 동일본대지진의 기억이 새삼 표면화되는 이유는 우선 팬데믹의 경험이 그 3월의 기억과 어딘가에서 겹쳐지기 때문이다. 사재기로 인해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상품이 줄어들거나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서 있는 광경은 사토미의 “신체에 배어있는 다른 기억”(石沢, 45쪽)을 환기시킨다. “감염이 확대된 3월, 내 신체는 9년 전 3월의 단편을 떠올리고 있었”(石沢, 46쪽)던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가 그전보다 어려워짐으로써 경계의 존재가 다시금 부각된 이때 노미야가 괴팅겐으로 와서 사토미와 만남으로써 이 같은 거리에 대한 감각은 본격적으로 교란되기 시작한다. 이는 트렁크를 끌고 기차에서 내린 노미야가 사토미에게 다가오는 동안 “거리가 상실됨에 따라 이미 멀어져 있던 시간과 멈춰 있던 기억이” “움직이기 시작한다”(石沢, 5쪽)는 서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실제로 노미야가 도착하고 나서 이 주도 지나기 전에 괴팅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도시에는 ‘행성의 길(Planetenweg)’이라 불리는 태양계의 축적 모형이 있는데, 현재는 해왕성에서 끝나게 되어 있는 이 길 끝에 철거된 명왕성의 옛 브론즈판이라는 “유령적인 사물”(石沢, 65쪽)이 다시금 목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토미가 명왕성을 뜻하는 플루토(Pluto)라는 말이 명부 즉 “죽은 자가 가는 장소”(石沢, 63쪽)의 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떠올리듯, 죽은 노미야의 등장과 함께 소설의 배경인 괴팅겐은 곳곳에서 지나간 시간과 죽은 자들이 현현하는 장소로 바뀐다. 거리에는 과거의 정경이 겹쳐지고, 건축

물과 사람과 관계된 기억이 도시 곳곳에서 가시화된다. 그 가운데 사토미는 노미야를 통해 독일에 유학한 적이 있는 데라다 도라히코(寺田寅彦)와도 만난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데라다의 『천재와 국방(天災と国防)』이 다시 널리 읽혔던 것을 떠올리면, 기억의 문제를 탐구하는 이 소설이 노미야가 생전에 유심히 읽기도 했던 데라다의 글에서 “거리를 없애는”(石沢, 134쪽) 언어를 읽어 낸다는 것은 중요하다. 나아가 이 소설 자체가 지향하는 것 또한 언어를 통해 죽은 자들을 현재로 다시 불러오며, 기억의 재생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일 터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여러 층위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동일본대지진이나 다른 재난과 만나고 그 기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가? 앞서 『문 나이트 다이버』나 『이욱고 바다에 닿다』와 같은 작품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유물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엿볼 수 있었다면, 이 소설에서도 누군가가 사용하던 물건이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의 증거로서 등장한다. 사토미의 하우스 메이트인 아가타는 땅에서 트러플을 찾아낸 적이 있어 ‘트러플 개’라 불리는 개를 키우는데, 노미야가 괴팅겐에 나타난 이후로 이 개는 산책을 할 때마다 숲에서 무언가를 발굴해낸다. 그것들은 가령 지팡이, 장난감 칼, 닥트 화살, 양 인형, 녹슨 잔, 손잡이가 부서진 양동이, 탑 모양을 한 인형의 집 같은 “누군가의 생활에 편입되었다가 거기서 떨어져나간 것들”(石沢, 66쪽)이다.²⁷⁾ 아스만은 이 메타포와 관련해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마들렌 과자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시자와 마이 역시 이것을 의식하고 있음은 사토미가 이 조개 모양 과자를 “맛을 본다는 핑계로 홍차와 함께 하나 입에 넣어봤지만 내 기억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 것에도 이어지지 않았으며, 멍하니 잠든 채였다”(石沢, 89쪽)라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그것이 발굴된 장소에 걸맞지 않은, 과거에 누군가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쓰나미로 인해 내려갔다가 연안부에 남겨진 잔해, “시간에서 뜯겨져나간 사람의 과거의 단편”(石沢, 67쪽)과 겹쳐진다.

27) 이렇게 ‘발굴’되는 기억은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이 기억의 메타포 중 하나로 고고학적 발굴의 심상을 들었던 것과도 관련된다. 이 소설에서는 기억의 퇴적층에서 표면으로 들어 올려진 기억이 땅속에서 파내는 물건들이라는 직접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알라이다 아스만, 채연숙·변학수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217-218쪽.

사토미는 이러한 사물들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기억으로 이어지는 말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사토미가 성인의 ‘어트리뷰트’를 연구한다는 설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어트리뷰트는 성인이 겪은 아픔을 증거하는 사물이며, 그럼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게 해준다. 어트리뷰트가 그들을 익명해서 보호하고 이름을 부조해주듯, 죽음 뒤에 남겨진 물건들은 뒤섞이고 잊힌 익명의 이미지들 속에서 특정한 이름과 그에 연결된 기억을 소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소설에서는 사토미의 주변인물들이자 성인의 이름을 가진 아가타, 카타리나, 루치아 등이 숲에서 나온 이 물건들 속에서 각자 자신의 죽은 어머니나 남동생의 기억과 이어져 있는 무언가를 찾아낸다. 이러한 물건들을 통해 거기에 깃든 이름과 기억을 상기하게 하면서, 소설은 죽고 없어진 사람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분명히 존재했음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소설의 후반부에 사토미의 등에 갑자기 이가 돌아나는 것은 이러한 기억이 말 그대로 실체로서 나타날 수 있음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사토미는 이것을 “기억의 이”(石沢, 108쪽)라 칭하는데, 나치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은 ‘걸림돌(Stolperstein)’이 “금속의 이”(石沢, 114쪽)로서 거기에 겹쳐지는 것도 이렇듯 신체로 감각할 수 있는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들은 하나하나가 특수한 관계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도 포함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나’의 경험은 아니고, 앞에서 살펴보았듯 사토미가 느끼는 “거리에 대한 죄책감”(石沢, 150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에서 그 같은 거리는 쉽게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했다. 바다가 삼켜 버린 장소와 쓰나미가 오지 않았던 장소라는 이면성을 뚜렷이 의식하는 사토미는 자기가 없었던 장소에 대해 어떠한 기억을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익명의 보도나 사진, 영상에 담긴 시선을 표면적으로 더듬은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인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石沢, 117쪽) 것이다. 분명히 존재한 “그 누군가이면서도 (…) 낯선 사람들”(石沢, 67쪽)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을지

라도 그것들을 온전히 공유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애초에 이 소설의 문제의식이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아픔과 죽음 또한 공습이나 쓰나미로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처럼 한편으로는 “같지만 다르다”(石沢, 132쪽)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다른 기억들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소설이 모색하는 답이 아마 사토미의 독일 친구인 우르술라가 만들어내는 성좌적인 인간관계일 것이다. 2011년 당시, 처음에 연안부나 이웃 현, 피난 지시 구역 등으로 부감적으로 전해지던 동일본대지진에 관련한 정보는, 노미야의 실종을 계기로 사토미나 그의 연구소 동료들에게는 “노미야가 있던 장소”(石沢, 48쪽)로 집약된다. 사토미가 자신이 “3월의 날”에 신체의 각 부분에 새겨진 기억을 뚜렷이 떠올릴 수 있듯, 이렇게 구체적인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뉴스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간 이들이나 그들 각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 소설에서는 우르술라의 독서모임을 중심으로 점점이 연결된 인간관계가 도시 바깥에까지 이어지고, 쓰나미의 기억을 상징하는 노미야의 유령과 만나기를 회피하던 사토미도 우르술라의 집에서 그와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 또 소설의 결말에서는 우르술라를 통해 연결되었던 등장인물들이 다 함께 명왕성의 브론즈판을 보러 나서는데, 이는 “시간의, 기억의 순례자”(石沢, 134쪽)라는 말로 표현되듯 그들 각자가 발굴된 물건을 통해 자신이 꺼안고 있는 죄책감이나 상실의 기억과 만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설에서 우르술라는 “타자의 말에 귀를 계속 기울이며 부분적으로 건네받은 누군가의 기억을 침묵 속에서 짚어지고, 그리고 전쟁과 지워진 사람의 기억을 파내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石沢, 134쪽)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여기서는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던 우르술라가 함께 책을 읽는 만남을 주최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듣는 인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말을 끌어안은 사람은 누구나가 그녀 주위를 돌게 된다”(石沢, 33쪽)는 것이다. 즉 말을 매개로 사람들은 느슨하게 연결되고, 별자리처럼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더듬어 가다보면 누구도 서로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셈이다.

소설에서 사토미가 노미야와 “남겨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와 관련된다. 사토미에게 노미야는 낯모를 타인보다는 가깝지만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소설은 사실상 사토미가 이러한 노미야와 만나고 마침내 대화하기까지를 그린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토미가 죽은 이와를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유족들의 생애사를 조사한 다루카와 노리코(樽川典子)에 따르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비탄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죽은 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해서 그를 가깝게 의식하는 것이다.²⁸⁾ 물론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그도 짚어주듯 죽은 자의 생전을 소재로 구축되는 이야기다. 이처럼 사토미와 노미야는 노미야가 이미 죽은 후에 새로운 관계성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죽은 자는 조금 더 ‘가까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사토미가 계속해서 쓰나미를 떠올리고, 여러 다른 재난을 죽음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단독적인 경험을 통해 서로 연결시키며, 장소나 이름, 갖가지 유류품 등에 새겨진 기억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사토미는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비로소 노미야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읽는 경험을 통해 타인의 삶과 죽음에 다가섬으로써 그를 더 이상 타인이 아니게 하는 문학적 작업 자체와도 겹쳐진다.

IV.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쓰인 문학작품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직접적으로 등장시키며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이윽고 바다에 닿다』와 『조개에 이어지는 장소에서』를 분석하였다. 전자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잃고 살아남은 이의 죄책감을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절대적인 타자성을 보여주고, 후자는 재난이나 그로 인한 타인의 죽음과의 어

28) 樽川典子, 『一章 生存者の物語論』, 樽川典子編, 『喪失と生存の社会学: 大震災のライフ・ヒストリー』, 有信堂, 2007, 12~16쪽.

찌할 수 없는 거리에 천착하면서도 그 아픔을 나누어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또 두 작품 모두 동일본대지진을 다른 재난이나 사람의 죽음 그 자체로 확장시키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같은 사건의 바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죽은 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이렇듯 보편적이면서도 개별적인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동일본대지진은 타인의 죽음을 상기하고 슬퍼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설에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팬데믹으로 죽거나 자신의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재난이라는 공통평면을 만들어내지만, 물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하나로 묶어버려서는 안 되는 저마다의 경험인 것 또한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듣거나 읽음으로써 손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한신아와지대지진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한 피해자는 생애사 조사에서 “부흥이라는 말에 저는 엄청 반발을 느꼈습니다. 그건 재산만 잃은 사람의 이야기지,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에게 부흥은 없어요. 재산만 잃었다면 사물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부흥이겠죠. 하지만 가족이 눈앞에서 떠나간 사람에게는 사물이 원래대로 돌아와도 부흥이 아닙니다. (...) 피해자라고 하나로 묶여도 가족을 보낸 사람과 가족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명백히 다르다는 마음이 세계는 있습니다”라는 심정을 토로하였다.²⁹⁾ 아마도 어떠한 재난이든 그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은 사람은 실로 그 사건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그러한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그날’이란 가령 한신아와지대지진이 일어난 1995년 1월 17일이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달력에서 이 같은 표지가 되는 날짜를 아마도 무수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또한 재난의 피해에는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며, 어떤 경험의 차이는 ‘우리’라는 말로 쉽게 뛰어넘으려 해서는 안 됨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는 또한 사토미를 괴롭히는 “상실의 심도”(石沢, 80쪽)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아베 지카이(安倍智海)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29) 「JKさん(四二歳)」, 榎川典子編『喪失と生存の社会学:大震災のライフ・ヒストリー』, 有信堂, 2007, 224쪽.

서로 슬픔을 비교하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라는 말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나머지 결국 ‘유대(絆)’와 같은 말만이 통용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³⁰⁾ 하나의 재난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상실과 슬픔의 깊이를 잘게 쪼개어 비교할 수 있다면, 다른 재난들 사이에는 어떨까? 후루카와 히데오(古川日出男)는 2011년 3월 11일의 대지진과 뒤이은 원전사고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다른 재난들을 잇게 만들었음을 상기시킨다.³¹⁾ 예컨대 그날 후쿠시마현의 시라카와(白河)시에서는 대규모 땅사태가 일어났고 3월 12일에는 나가노(長野)현 북부 지진이 일어났지만, 세상은 그것을 아예 모르거나 잊었다. 또 승려로서 NPO법인 교토 자살(自死·自殺)상담센터 대표이기도 한 다케모토 료고(竹本了悪)는 동일본대지진이 한 달 뒤에 열린 이 센터 주최의 심포지움에서 대지진의 피해자들에게 묵념을 하자, 자살 유족인 한 친구가 “자살한 사람에게 묵념하지 않아? 왜?”라고 물었다는 일화를 전한다.³²⁾ 죽은 자에 대한 슬픔과 애도는 분배해야 할 자원이 아니므로 제로섬일 수 없지만, 이는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특정한 재난에 대해 깊이 그리고 오래오래 생각하는 것은 다른 죽음과 고통에 대한 상상으로 확장되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그럴 때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문학’이란 결국 단지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것만이 아닌 방식으로 상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0) 아베는 이처럼 슬픔과 상실의 크기로 이야기할 자격을 따진다면 “대체 누가 자기 마음을 솔직히 토로할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그가 쓰고 있듯, 귀가가 어려웠던 사람보다는 자택이 떠나려간 사람이, 자택이 떠나려간 사람보다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가족을 한 명을 잃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이, 하는 식의 비교가 닿는 곳은 “진정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자뿐이다”라는 결론이다. 安倍智海, 『ざわめきと声の汽水域』, 鈴木岩弓他編, 앞의 책, 102쪽.

31) 古川日出男, 『ゼロエフ』, 講談社, 2021, 67쪽.

32) 竹本了悪, 『いのちの境界を超える: 超えることのよろこび』, 鈴木岩弓他編, 앞의 책, 22쪽.

참고문헌

① 기본자료

綾瀬まる, 『やがて海へと届く』, 講談社, 2019.

石沢麻依, 『貝に続く場所にて』, 講談社, 2021.

② 논문

박유미, 「동일본대지진과 재해문학의 치유와 재생 담론」, 『인문학연구』 104호,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139~161쪽.

심정명, 「재난과의 거리: 『내가 없었던 거리에서』와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문학」,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27,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0, 109~152쪽.

安倍智海, 「ざわめきと声の汽水域」, 鈴木岩弓他編, 『<死者/生者>論: 傾聴・鎮魂・翻訳』, ぺりかん社, 2018, 99~109쪽.

工藤優香, 「第1章 死者たちが通う街: タクシードライバーの幽霊現象」, 金菱清(ゼミナール)編, 『呼び覚まされる靈性の震災学: 3.11 生と死のはざままで』, 新曜社, 1~23쪽.

鈴木岩弓, 「二・五人称の死者: “死者の記憶”의 메카니즘」, 鈴木岩弓他編, 『<死者/生者>論: 傾聴・鎮魂・翻訳』, ぺりかん社, 2018, 145~181쪽.

竹本了悟, 「いのちの境界を超える: 超えることによるこび」, 鈴木岩弓他編, 『<死者/生者>論: 傾聴・鎮魂・翻訳』, ぺりかん社, 2018, 219~226쪽.

坪井秀人, 「生者と生きる: <ポスト3.11>의 死者論言說」, 坪井秀人・シュテフィ・リヒター・マーティン・로트編, 『世界のなか의 3.11: ヨーロッパと日本の対話』, 新曜社, 2019, 169~189쪽.

藤田直哉, 「同時代としての震災後」, 限界研編, 『東日本大震災後文学論』, 南雲堂, 2017, Kindle Edition.

沼野充義, 「あの日」を越えて: 私たちはみな震災後の亡命者である」, 木村朗子・アンヌ・バヤール=坂井編, 『世界文学としての<震災後文学>』, 明石書店, 2021, 39~58쪽.

③ 단행본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 『죽음에 대하여: 철학자 장켈레비치와의 대화』, 변진경(역), 돌베개, 2021.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채연숙(번역),

그린비, 2011.

綾瀬まる, 『暗い夜、星を数えて:3・11被災鉄道からの脱出』,新潮社, 2012.

石戸諭, 『リスクと生きる, 死者と生きる』, 亜紀書房, 2017.

木村朗子, 『震災後文学論 あたらしい日本文学のために』, 青土社, 2013.

木村朗子, 『その後の震災後文学論』, 青土社, 2018.

くどうれい いん, 『水柱の声』, 講談社, 2021.

島蘭進, 『ともに悲嘆を生きる: グリーフケアの歴史と文化』, 朝日新聞出版, 2019.

高橋原・堀江宗正, 『死者の力: 津波被災地「霊的体験」の死生学』, 岩波書店, 2022.

樽川典子編, 『喪失と生存の社会学: 大震災のライフ・ヒストリー』, 有信堂, 2007.

天童荒太, 『ムーンナイト・ダイバー』, 文藝春秋, 2016.

ビザリー・ラファエル, 『災害の襲うとき: カタストロフィの精神医学』, 石丸正訳, みすず書房, 2016.

古川日出男, 『ゼロエフ』, 講談社, 2021.

宮地尚子, 『震災トラウマと復興ストレス』, 岩波書店, 2011.

④ 인터넷 자료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E099ZW0Z00C22A300000/>, 2022년 9월 25일 접속)

NHK (<https://www.nhk.or.jp/radio/magazine/article/my-asa/hMPH5m411a.html>, 2022년 9월 25일 접속)

Abstract

Representation of Death in Literature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Sim, Jeongmyoung (Chosun University, HK Professor)

After March 11, 2011,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is complex disaster greatly changed Japanese society, many writers discussed “post3.11 literature”. In this paper, in order to ask who could be the proper one to remember this disaster and mourn the death caused by it, I analyzed two literary works that summon people who have gone missing due to the tsunami as ghost.

Maru Ayase's *One day, You will Reach the Sea* begins with the guilt of the survivor, and deals with the ultimate otherness of death. Also, by letting the character who has already died speak as ‘I’, its readers can realize the weight of each death. Mai Ishizawa's *At the place following the shell* asks questions about the multi-level distance between the people who survived and the Earthquake. In this novel set in Germany, the ghost of the dead bring back memories of the past, followed by Covid-19 pandemic, tsunami, wars etc. Through these works, readers can experience the loss and pain caused by the tsunami and get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mourning. Also, these works, asking how we can participate in deaths other than tsunami, provide a clue to remember and grieve other pains.

Key Words: 3.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Memory, Mourning, Ayase Maru, Ishizawa Mai, Disaster Literature

논문 투고일 : 2022년 09월 25일 심사 완료일 : 2022년 10월 12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10월 14일
--